

고대사 관심 높은 가운데 대중화 성향

쟁점으로 읽는 '97년의 지성사

국사학

박선식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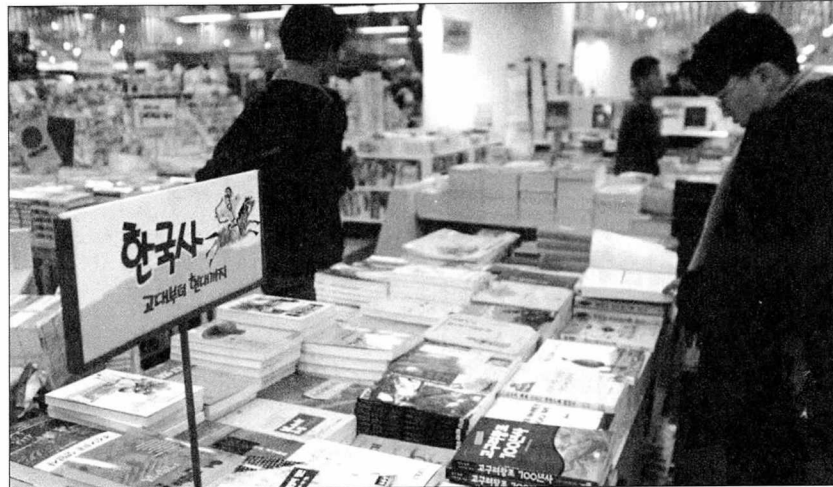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였다. 하지만 그다지 기억에 남는 큰 행사가 없어 아쉬운 한 해였다. 올해들어 국사학 관련도서는 매달 꾸준히 출간되어 나름대로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간의 출간물들을 소략하나마 살펴 보자.

고구려·백제·신라 등 고른 저술

서병국 교수(대전대)가 지은 《고구려제국사》(해안)는 그간에 국사학설상 주요 관심사안 중의 하나인 고구려의 기원을 과감히 기원전 232년까지로 상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더욱이 연개소문의 모반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영류왕 정권의 위기의식으로 비로되던 제거의사에 반한 역공으로 그친 것이 아님을 거론한 점은 도드라진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류왕의 친당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도학씨의 《새로 쓰는 백제사》(푸른역사)는 백제를 건국한 온조, 비류가 고구려계가 아닌 부여계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백제와는 별도로 만주에도 '또 하나의 백제'가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백제인의 광범한 활동반경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백제를 부각한 백제인의 천하관 등을 거론하여 백제의 제국적 위상을 한껏 뚜렷이 하는 관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제국적 통치체제를 담보하는 부문인 군사체제를 너무 소략히 서술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라와 관련한 강행물로는 이문기 교수(경북대)의 《신라 병제사》(일조각)를 들 수 있다. 저자는 신라의 군사조직 중에서 중고기에 국한하여 당시 군사조직의 운영체제와 군령체제를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무관조의 내용을 중국의 정사 및 《고려사》 백관지 서반조와 관련하여 검토하였고, 제2장에서는 신라 군사조직의 핵심이 되는 육정과 삼천대 및 시위부에 대하여 그 성립과 전개를 심층적으로 규명한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육정군단을 중심으로 중고기 군사조직의 운용실태를 규명하였는데, 기본적 군사력인 병졸에 대하여 그들의 실체를 파악코자 한 점이 크게 주목된다. 하지만 화랑낭도들의 군제적 파악이나 구서당에 관련한 군호 등을 세심히 규명하



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한편 이호영 교수(단국대)의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 연구》(서경문화사)는 삼국병합에 관해 또 다른 의견을 부각시킨 논저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라가 내적 모순을 극복하면서 통일의식을 착실히 실현시켜 나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태종무열왕권의 대두가 구국통합의식을 계승하고 강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국민적 응집력으로 발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신라가 삼국통합을 이룩한 요인이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상호간에 군사력의 운용이나 전략의 개념의 성패로 삼국의 통합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는지 다소 아쉽다.

가야열국과 관련하여 가야문화연구소가 펴낸 《가야제국의 왕권》(신서원)은 그간에 착실히 이루어진 가야연구 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중에 김태식 교수(홍익대)는 가야제국이 전기와 후기에 걸쳐 연맹체를 결성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세기 교수(경산대)는 가야고분에 보이는 순장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5세기 전반 이후의 고령을 중심으로 가야왕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박천수 교수(경북대)는 고령권의 고분은 대가야의 왕권에서는 지역을 초월하는 왕권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저작물 눈에 띄게 많아

고려조에 관련한 저작물로는 한국중세사학회가 펴낸 《고려시대강의》(늘함께)가 눈에 띈다. 이 책은 그간의 왕력별 사실과 시기별의 주요 제반 사실들을 새로이 고찰하

“ 올해의 국사학 관련 저작물들은 고대사와 조선조에 몰린 경향을 느낄 수 있으며, 역사물의 대중화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내년에는 보다 조밀한 역사의식이 가득한 노작을 기대해 본다. ”

였다. 그런데 보론으로 제기된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관한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흔히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규정해오던 것이 그간의 중심적 학설이었으나, 한편에서 줄곧 제기돼오고 있는 관료제설을 거론하며 양론을 모두 비교 검토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올해 들어 조선조에 관련한 저작물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덕일씨(숭실대 강사)의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석필), 오석원 교수(성균관대) 등의 《안동의 선비문화》(아세아문화사), 차장섭 교수(삼척대)의 《조선시대 별명연구》(일조각), 신용하 교수(서울대)의 《조선 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 연구》(지식산업사)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 《조선 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 연구》를 살펴보자.

저자는 이 책에서 동학농민군의 토지개혁안이 정약용의 정전제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집강소의 정전제는 정약용의 그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두레를 그 요체로 하여 전개된 공동경작 방법으로 보는 점이 주목된다. 그 외에 정약용·유형원·박지원·박제가 등 당대의 걸출한 실학자들의 견해

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역사물의 대중서bum이 거세게 일고 있는 와중에 국문학적 작품을 비중있게 정리한 책이 있었다.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들녘)가 그것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서사시인데,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역사학계의 관심이 소홀했었다. 이 책은 전 서울대 교수인 김성철씨의 원역본에 그의 아들이 역사적 고증과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폭넓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유려한 글맛이 도드라지게 느껴진다.

한편 조선조의 의병전쟁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책으로 《민족문화와 의병사상》(안동문화연구소)이란 책이 눈에 띈다. 이 책은 의병운동이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귀족주의적 전통 속에 놓여 있는 유학적 지식인들이었지만, 운동의 주체는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그러한 호국적 의식이 삶 속에서 문화적 양상으로 표현되어온 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조선 후기 이후의 민족주의 전개과정에 관하여 새롭게 다룬 책으로 김혜승씨의 《한국민족주의》(비봉출판사)가 있다. 이 책은 후기 실학파와 대원군의 쇄국정책, 그리고 동학파 갑오농민전쟁 등을 골간으로 하는 한국민족주의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 그간에 거론된 민족주의의 전개이론을 오늘날 다시 정립한 의미가 있다.

이외에 근래 첨예한 관점의 골이 형성되고 있는 한국근대성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소가 펴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비평사)이 주목된다. 이 책에서 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오늘날과 일제시기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한 북한경제의 오늘을 설명하는 데도 적당하지 않다”고 적시하며, 그동안 주된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올해의 국사학 관련 저작물들의 추세를 볼 때 고대사와 조선조에 몰린 경향을 느낄 수 있으며, 역시 역사물의 대중화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내년에는 보다 조밀한 역사의식이 가득한 노작들이 우리들을 충실한 시대의식으로 이끌기를 기대해본다. ♦